

건축문화 사랑방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0.01.122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전라남도건축사회
전라북도건축사회
발행인 : 강현규, 조연준, 이길환
창간일 : 2009년 11월 10일

GWANGJU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 T. 062.521.0025 F. 062.528.0026

02 시론

'광주다움', 공동주택을 생각한다.

03 종합

사랑에서 _ 마음을 얻다

법령소식

건축사 만평

04-05 광주 지역 뉴스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광주건축사회, 2020년 경자년 사무식 개최하고 힘찬 출발 알리
광주건축사회,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감사선거 등록신청 공고

06-07 전남 지역 뉴스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 진행
전남도, 주택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건강 증진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착수

08-09 전북 지역 뉴스

전북건축사회, '도내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성금' 전달
전북건축사회, '2019년 전북건축사 송년의 밤' 개최
전북건축사회, '2020년 신년하례회' 개최

10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사용승인 공공 분야) 금상 '오죽정인'

11 종합뉴스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개최

12 독자광장

신년 휘호

세상사는 느낌 _ 한겨울 하얀 눈을 기다리며...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 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
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개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해당 기고문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주다움’, 공동주택을 생각한다.



손승광
동신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 광주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장
- (사)한국주거학회 회장 역임
- (사)한국건축정책학회 부회장

최근 들어 광주에서 활동하는 건축인들에게 <광주다움>이라는 어휘는 큰 화두가 되었다. 개발 시대 경제 논리에서 탈피하여 가치 있는 광주의 건축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였다. 건축을 전문가만이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가치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한다는 점에 아주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광주다운 건축은 기념비적인 건축, 창의적인 건축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현실에서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축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새로운 자세를 생각하는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광주다움>이라는 주문

‘광주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흔히 시각적인 대상에서 찾으려 하는 것 같다. 광주의 특징이 무엇인가? 또, 상징하는 대표적 표상은 무엇일가를 생각하는 이들도 있다. 건축이 도시를 풍요롭게 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주는 대상으로 당연한 생각일 수 있겠다. 한편으로는, 날로 하늘 높게 솟아오르는 아파트를 보면서, 마치 콘크리트 숲으로 변해가는 아파트들을 보면서 되돌아 보는 절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은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에서 허용하는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는 표준설계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기계적인 공간과 도시를 싫어한다. 이를 혐오하는 단계까지 부정적인 생각이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 또한 아파트를 경제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면 그들도 다른 시각을 가지기도 한다. 어쨌든 객관적인 관점에서 도시를 돌아보면, 이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답답하고 숨 막히는 환경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긍정적인 생각이 <광주다움>으로 표출되었다고 생각된다.

병풍아파트의 문제

<병풍아파트>란 고층아파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현상을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병풍아파트의 한계는 도시공간을 콘크리트 블록으로 하늘을 뒤덮어 가는 차폐성이다. 그 커다란 콘크리트 벽에 압도된 사람들은 불쾌하고 답답하기 한이 없다. 주거환경은 편안한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을 압도하고 압박한다.

아파트가 사람들에게 압박감을 준다는 표현이 많아졌지만, 최근에는 아파트가 주는 압박감 때문에 ‘가슴이 짹-막혀온다’라는 표현을 흔히 듣는다. 일반시민들 중의 일부는 매우 민감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경제개발을 원하는 개발자들의 사업기획이 있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건축인들의 경제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건축인들이 저층만이 대안이라는 이상주의적인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비교적 현실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고층고밀도의 아파트를 피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파트의 최고 높이규제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광주다움의 첫 번째 인식은 고층화에 대한 논란이다. 아파트가 고층화되면서 하늘이 보이지 않는 아파트단지가 늘었다. 고층화의 궁극적인 폐해는 하늘을 가리는 압박감이다. 충고를 제한하면 그 압박감을 해결하는 대안이 된다는 생각이다.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고층이 그 문제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충고를 맞추는 것을 일차적으로 주문한다.

도시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요 지점에서 통경축을 지정하고 하늘을 보이도록 도시설계 기준을 만든다. 그다음에 건축사들은 통경축을 형성하면서 남향 아파트를 설계한다. 입주자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고밀도개발에서 개방감을 획득하려는 기준을 만들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판상형으로 건축하는 아파트단지는 통경축이 있더라도 시점을 조금만 이동하거나 방향을 틀면 아파트단지는 여전히 폐쇄적이다. 남향 건물의 뒷면은 겨울철에 영구적인 그늘이 형성되며, 또 멀리서 바라보면 콘크리트 벽인 병풍아파트가 된다. 결국은 충고를 규제하더라도 병풍아파트가 형성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게 된다.

최고높이 지정 문제

고층·초고층 아파트는 병풍아파트를 유발하는 직접적 원인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광주시에서는 주거건축의 경우, 3종 주거지역에서는 30층, 주상 복합건축에서는 40층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주거단지 도시 외부환경의 압박감과 환경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준이며, 이와 더불어 화재에 대한 피난과 안전의 문제 또한 높이규제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는 건축법이 허용하는 건축물의 높이 기준보다 강화된 광주시의 기준이다. 또 다른 광주시의 검토기준으로는 도로의 폭과 대지 조건의 특성을 기준하여 산정하는 <건축물의 허용높이> 기준이 제정되었다(2019.7).

3가지의 기준은 건축물의 최고높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 주거건축의 재난 안전성과 경관의 적정성에 대한 기준으로 30층과 40층의 기준은 매우 강해 보인다. 실제로는 이 절대높이보다는 도로 폭과 대지 조건이 가지는 기준에 의해서 정해지는 높이 기준이 더 우선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최고높이 기준이 더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

맨하탄의 건축물은 높이규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혹자는 건물 높이 규제를 그와 같이 하자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부분에서 맨하탄은 2.5km X 4.0km의 면적에 대해서 지하철 라인이 6개나 통과하게 되어서 도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는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 맨하탄은 두 번째는 고층을 허용했으면서도 하늘이 보인다. 화재에 위험한 초고층을 주장하고자 예를 소개한 것은 아니다. 소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초고층건축군들에서 건물 기준층이 병풍처럼 길게 늘어진 건물이 없다는 교훈이다. 철저히 도시공간을 먼저 생각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서 건축물이 주는 압박감과 폐쇄감을 해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배울만한 큰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건축물의 평균 높이 규제 : 스카이라인의 다양성을 추구한다

우리나라 아파트단지의 가장 큰 단점은 단연 획일성의 문제이다. 개발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법적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하게 되고, 결국 모든 건물의 높이는 최고높이로 귀결된다. 창의적인 디자인을 위하여 획일적이지 않은 디자인을 유도하지만 획일적이었다도 개발이익을 획득하려는 욕구를 포기시키기보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아파트단지에 대한 최고높이 규제와

제한은 건물이 하늘과 만나는 스카이라인을 획일적으로 유도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려면, 단지형 프로젝트에서 건축물은 최고높이 규제가 아니라 평균 높이(층수) 개념을 활용해야 한다. 평균 높이란? 단지에서 목표하는 높이가 있더라도 어느 정도(20% 제한)는 낮거나 높은 건물이 가능하도록 하여 그 평균높이가 이상적인 목표치(30층 혹은 40층)를 가지도록 하면 건축물의 높이와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이 가능하게 된다. 도시경관의 다양성을 획득할 수 있겠다.

한강변은 한강조망권의 가치를 잘 인식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한강변에는 초고층을 지양하고 대신에 층고변화를 통해서 용적률을 활용하도록 한다. 세종신도시에서도 가로에 면하는 아파트 높이는 낮지만 안쪽의 주거동은 높게 한다. 이를 통해 얻는 것은 도로를 걷는 사람들에게 편하고 안정된 공간을 제공한다.<그림 참조>. 변화하고 다른 요소를 활용하여 도시의 아름다움과 가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



한강변 아파트개발

강남재개발 아파트단지

세종시의 아파트단지

하늘의 개방감을 획득하는 방법

아파트가 하늘을 가리는 주요 원인은 단위주택의 내부 공간 설계로부터 출발한다. 주택에서 햇빛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전면을 길게 하고 깊이를 얇게 한다. 소위 소규모주택에서도 4 Bay 주택을 설계하고자 한다. 소비자들이 맞통풍과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분양에 유리하다고 한다. 중대형 면적에서는 그나마 이해가 된다. 그러나 이러한 선입관과 고정관념은 65㎡ 면적에서도 반복된다. 그 기능으로 보아도 옷방으로 사용되는 방까지도 그렇게 설계하려 한다. 철저히 내부 공간 위주의 결정이다. 결과는 아파트가 동서 방향으로 길게 늘어지고 효율적인 배치를 위해서 연속하여 배치하면 딱 병풍형 아파트 단지가 된다.

저층아파트인 경우에는 건축물이 길어져도 하늘이 보인다. 용적률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지면, 3종주거단지, 혹은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높은 토지용적률을 구현하게 되어서 그 아파트는 하늘에 병풍을 치는 듯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평면에서 햇빛을 누리려는 강한 욕구는 건축물을 길게 늘어뜨리게 되는데, 내부 공간의 일조만을 고집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주택과 공동주택 : 나만의 공간인가? 함께하는 공간인가의 선택이다.

공동주택의 기본 설계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 효율성은 단위주택의 깊이를 깊게 하고 외기에 면하는 길이를 줄여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주택의 효율보다도 내부 공간 구성에서 햇빛 받는 환경의 목표를 과도하게 고집함으로써 도시주택으로서 기본개념을 망각하게 되는 현상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4베이의 거주성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창고방으로 사용되는 실까지도 4베이 남향을 선택하려는 생각은 공동주택의 기본을 잊은 것이다. 내부만을 고집할 때, 외부 공간, 커뮤니티 공간, 도시경관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게 된다. 내부 공간의 질적인 문제, 전체에 비하여 개별적인 이익만을 고집하면, 전체의 이익, 도시적인 경관의 훼손을 자초하게 된다. 저층주거단지이거나 상업건축이거나 공통적인 현상은 건축밀도가 높아질수록 도로와 외기에 면하는 폭이 좁아지고 대신에 깊이를 활용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해 간다. 모든 건축물은 내부 공간에 대한 질적인 욕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을 추구하는 건축은 전면 폭에 비하여 깊이를 충분히 활용하는 선택은 세계적으로 공통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아파트만 그러한 보편성을 뛰어넘고자 한다. 주택으로 보면 나(내부 공간)의 이익은 강하게 요구하지만,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할 외부 공간에 대해서는 관심이 뒷전이다. 살아가야 할 공간은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 동시에 중요하다.

건축법의 경계, 경제성과 인본주의

건축법은 개인의 건축행위, 혹은 부분적인 개발 행위로 인하여 다른 부분에 피해를 유발하거나 상충되는 요인을 최소화시키는 기준이다. 이러한 기준이 모두를 만족시키기에 충분인가? 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그 이유는 최선의 기준이 아니기 때문이다. 토지가격이 높아질수록 건설업계의 경제성은 높은 토지 이용률로 이를 만회하고자 하고, 점차 용적률의 상향, 도시계획의 완화 등으로 최소한의 기준은 이상적 기준과는 멀어진다.

그렇다고 생명체로서 인간의 포용력까지 달라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인간이 원하는 기준으로 보면 인간이 살아갈 환경을 만들어가는 기준이 점차 멀어져 가고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건축법에 맞추어졌다고 하여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 이상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점차 거꾸로 가는 현상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광주다움의 건축, 미학에서 인본주의의 구현으로

광주다움은 광주의 정체성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된다. 광주의 정체성에 관한 철학적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본도시, 문화도시, 창조도시, 예향, 예술의 도시 등 다양한 어휘로 표현되어 왔다. 그러한 선언은 단지 미학적이고 시각적인 정체성만을 한정한 것은 아니라, 광주다움의 정체성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즘은 논의되는 광주다움은 경제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어 건축의 질적인 수준이 망가져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반성이다. 동시에 가치지향적인 환경을 구체적이고 실천적으로 만들어 가자고 하는 주문이다. 광주다움은 시각적인 즐거움과 가치에서 시작되었다. 여기에 <광주다움>의 건축적 가치는 인본주의에 기반한 공공성 그리고 커뮤니티를 지향하는 건축으로의 지평이 보다 폭넓게 확대되어야 하겠다.

사랑에서 _ 예수두 번째

마음을 얻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으나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는 우리가 매 순간 내리는 선택의 결과다.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두 사는 방식은 다르지만 혼자서만은 살 수 없다. 혼술, 혼밥, 1인 가구, 나홀로 여행 등등 혼자서 놀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전체 삶을 보면 더불어 살 수밖에 없다. 함께 하면서도 따로, 따로 있으면서도 늘 함께 가까이 있는 세상이다.

나 홀로가 대세라고 하지만 '연결'을 넘어 '초연결'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관계 속에서 산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산다는 의미다. 좋든 싫든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관계다. 이런 관계의 형성도 모두 나의 선택에서 출발한다.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라고 한다. 배우자, 가족,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다. 내가, 남이, 우리가 관계 속에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긍정과 인정, 소통과 공감의 필요하다. 소통과 공감은 마음을 얻었을 때 쉽다. 상대를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소통과 공감은 불가능하다. 쉽지 않지만 각각 영역에서 상대의 마음 얻기를 잘해야겠다.

나태주 시인의 <마음을 얻다>라는 시가 있다.

'있는 것도 없다고 / 네가 말하면 / 없는 것이고 // 없는 것도 있다고 / 네가 말하면 / 있는 것이다 // 후회하지 않겠다.' 마음을 얻으면 정말 이럴까? '후회하지 않겠다'란 마지막 문장은 그냥 믿었다간 후회할 일이 생길 것이란 암시로 느껴진다. 어찌 되었든 상대의 마음을 얻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완전 다르다.

무형의 상태, 아니면 겨우 개념적인 내용을 가지고 고객과 소통하고 공감하며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해야 하는 건축사들도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조직의 리더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어야 서로 믿고 의지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가족들도 서로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데 어려움이 많아진다.

내가 상대에게, 상대가 나에게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가 얼마만큼 가능할지는 여건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성공한 조직, 성공한 개인이 있는 곳에는 그 구성원들 간에 마음을 서로 얻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것은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소통하고, 공감하며 필요한 것을 서로가 채워줄 수 있을 때가 마음 얻기의 시작이다. 다름은 신뢰 속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꾸준히 지속하는 게 그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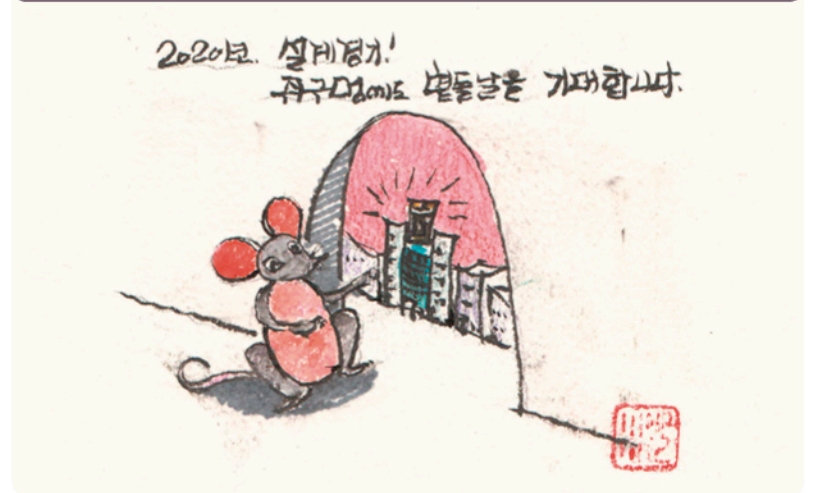
자문위원_박홍근 건축사(aforyou@naver.com)

법/령/소/식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http://www.moleg.go.kr) 또는 대한건축사협회(http://www.kira.or.kr) 법령정보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명	「건축사법」(법률 제10756호)		
공포일자	2019.11.26.	시행일자	2019.11.26.
주요내용	• 건축사 예비시험 폐지(제15조 삭제)		
법령명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29490호)		
공포일자	2019.1.15.	시행일자	2020.1.16.
주요내용	• 설계공모방식의 우선 적용대상 확대(제17조) (현행)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시금액(2억1천만 원)이상인 건축물 (개정)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건축물		
법령명	「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30145호)		
공포일자	2019.10.22.	시행일자	2020.1.23.
주요내용	• 용도변경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대상 확대(제14조) (현행)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함. (개정)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면 건축물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고,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같은 용도로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대상을 확대함.		

건축사 만평 _ 심상봉 건축사 作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이본석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본석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82, 2층
T . 062-228-0787-8
F . 062-228-0789
M. 010-2736-0787
E . lbs0787@daum.net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 군법무관 15기 임용
- (현)광주건축사협회 법률 자문변호사
- (현)광주광역시교육청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 (현)전남지방경찰청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 (현)부동산개발협회 광주지회 자문변호사
- (전)영무도건 자문변호사
- (전)광주광역시청 법률지원 자문위원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현구, 조연준, 이길환
창간발행인 신정철, 김강수, 이성엽
역대발행인 심상봉, 안길진, 국원식, 김남중, 윤문곤, 정명철, 박용득, 전병갑
초대편집인 박홍근
편집인 강동영
부편집인 박주현, 박종호, 양우현
자문위원 서재형, 정영환
전담기자 광승국
논설위원 이순미, 신영은, 박신남, 강필서, 이종순, 백재봉, 정영범, 김미영
편집위원 정관성,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임태형, 김영규, 설혜순, 이원규, 정영진, 임현정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5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 신한 131-009-471898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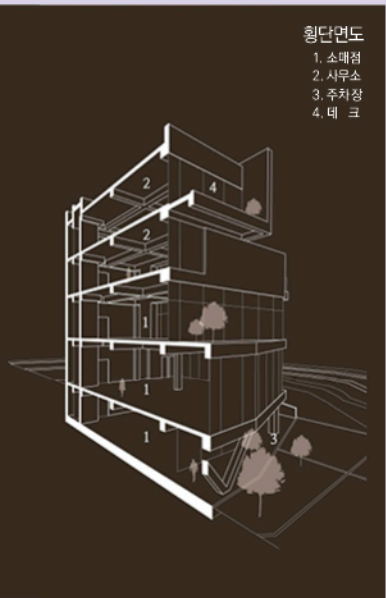
- 발전기금 : 1만 원부터
- 후원방식 : 신한 131-009-471898 (예금주 : 광주건축사회)
신정철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에이디그룹 350,000원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2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5 / gikira@empal.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원 등 재

정명환 건축사 / (주)디에이 건축사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마북로 67, 3층
 Tel. 062-375-2800



횡단면도
 1. 소매점
 2. 사무소
 3. 주차장
 4. 데크



대지는 도로로 편입되고 남은 삼각형 형상이다. 좌측은 인접 대지, 배면은 구거, 전면과 우측은 도로에 접하여 있다. 전면 도로는 경사가 심하여 좌측면은 1층에서 우측면은 지하층에서 진입이 가능하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함께 지하층에 자연광의 적극적 유입이 과제로 주어졌다. 제한된 용적률 때문에 법적 허용범위는 충족하되 각층마다 외부 휴게공간을 만들어 내부공간과 관계하여 기능을 확장시키고 외부공간에서의 다양한 행위는 역동감 있는 도시풍경으로 표현되기를 기대했다. 평입단면과 내외부 마감재, 난간 디테일에서 구조 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듈화 계획을 통해 재료 손실을 줄이고 시공자에게 모듈설계의 원리와 장점을 이해시켜 시공성과 마감 품질을 높였다. 거리 이용자로 하여금 좀 더 자연에 친숙할 수 있도록 도로와 건물 사이에 조경의 커를 반영하였다. 형태어휘는 수평의 선적요소와 면에 가려진 볼륨체를 적층하는 구축법을 적용하였다. 상호계획은 볼륨체의 다양한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커튼월로 반영하였다. 설계자는 도시 위에 또 하나의 건축물을 올렸으니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만큼 또 마음을 비우고 낮추는 시간이 필요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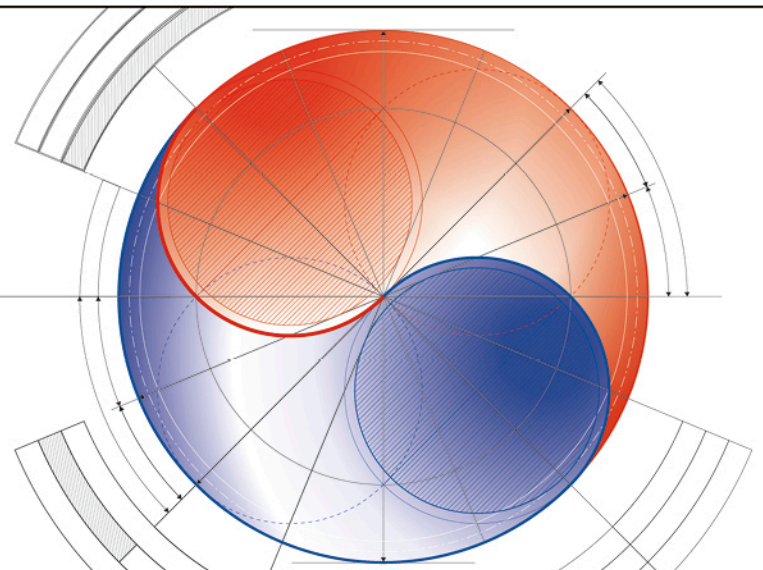
MIDAS
 ARCHIDESIGN
 대한민국 캐드독립

순수 국내기술로 개발한 대한민국 캐드 아키텍디자인.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www.midasCAD.com

구매문의 1899-9260



광주건축사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쌀 나눔 전달식 가져

지난 12월 20일 남구 방림2동 주민들에 쌀 10kg짜리 90포대 전달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12월 20일 남구 방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쌀 10kg짜리 90포대를 전달했다. 이에 앞서 13일에도 북구 중흥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동일하게 쌀 10kg짜리 90포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강현구 회장과 건축사회 임직원, 각 해당 동의 행정복지센터 동장 및 관계자, 해당 지역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소감을 밝히고 쌀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현구 회장은 “이와 같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며, “앞으로도 전문가단체로서 지속적인 사회공헌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건축사회는 매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나눔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저소득층과 독거노인에 김장김치 및 연탄 전달, 육아원 지원,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배식 봉사, 장애단체에 사회복지지원금 전달 등 다양한 사회지원사업을 펼쳐왔다.

광주건축사회, 2020년 경자년 시무식 개최하고 힘찬 출발 알리

지난 1월 2일 회관 대회의실에서... 회원 150여 명 참석, 우수 학생 장학금도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지난 1월 2일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회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경자년 시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무식에서 강현구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대내외적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현재 우리 모두가 함께 뭉쳐 건축사로서의 긍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사말에 이어 전남대학교와 조선대, 광주대 등 광주지역 4~5년제 대학 우수 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하였으며, 올 한해 추진할 사업들을 회원들에게 보고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광주광역시 건축주택과 김종호 과장이 참석하여 회원들에게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고시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끝으로 시무식 마무리로 회원 대표들과 떡 케이크를 절단하며 경자년 힘찬 출발을 함께했다.

광주건축사회,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할 감사선거 등록신청 공고

오는 1월 22일까지 예비후보자 공고, 본 공고는 오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광주건축사회(회장 강현구)는 3월 13일 제3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는 2020년 감사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오는 1월 22일까지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2월 11일에 감사후보자 본 등록을 공고하며 2월 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등록에 등록할 후보자는 후보자등록신청서와 입후보 소견서, 이력서, 후보자 추천서(감사 : 선거인 20인 이상), 선거공보 원고를 제출하고, 기탁금(감사 : 1백만원, 예비후보자 등록 시 50% 납입한 경우 50만 원 납입)을 납입하면 된다.

광주건축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그 어느 해보다 공

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33회 정기총회는 오는 3월 13일 오전 10시 서구 광천동에 위치한 웨딩 그룹위더스 광주 5층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

제32대 전국시도회장협의회, 법률 및 제도 개정에 대한 대한건축사협회 건의

올해 초 제32대 전국시도회장협의회(회장 김준식 서울건축사회장)는 대한건축사협회에 법률 및 제도 개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건의했다.

제32대 전국시도회장협의회의 대한건축사협회 건의사항 안내

(1) 건축법 소규모건축물 감리분리 법령개정

건축법 시행령 제19조2에 의해 소규모건축물 감리 분리가 현행 200㎡ 이하 직접시공 건축물 및 주택 포함 복합건축물만 이행함으로 인해 전국 감리규모가 50% 이상 축소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를 상주감리를 제외한 모든 건축물로 확대시행을 건의

(2)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한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등록기준 개정건의

2020년 6월 24일 등록시행 예정인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해체작업관리인 등록기준을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강화되어 있으나, 감리원교육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단기간에 교육, 배출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현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기준(1인 이상 배치)을 유지토록 대처 건의

(3) 국가 계약법, 지방 계약법에 의한 공동수급협정 대응 건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 시 건축분야의 전기, 통신, 소방 등의 등록업체 수가 지역마다 건축분야대비 현격히 부족한 상황으로 발주 시 소재지 지역으로 제한 시 참여건축사가 배제되는 폐해가 발생하고, 무리한 용역비 요구로 건축품질의 보장이 확보되지 못하는바 전기, 통신, 소방 분야를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건의

(4)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 방식의 우선적용대상 변경 등에 따른 건의

2020년 1월 16일 시행되는 설계공모방식의 우선적용대상이 설계비 추정가격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인 건축물로 변경됨에 따라 설계공모 방식의 건축사 참여가 5%도 되지 않는 시도의 건축현황에서 전국설계공모 방식 적용은 지역 건축경기 침체와 건축사 조직체계 붕괴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공모적용대상을 2억 원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대처 건의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대응 촉구

2019년 12월 5일 국토교통부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책임기술자 중 건축사 자격기준을 현행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에서 “정밀안전진단교육 이수 후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강화되어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는 건축사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적극대처 촉구

(6)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윤관석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가 될 것이며, 2020년 5월 1일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서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지자체별로 설치가 가속화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 수급 등이 문제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회원의 업무수행에 혼란이 가중될 것임. 따라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도서검토업무를 시도건축사회의 자문을 대체하는 방안”과 “건축물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점검업무를 시도건축사회 인력풀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

광주 회원동정

- **입회**
- 홍영표 건축사 / 라성 종합건축사사무소 / 광주 남구 대남대로 372번안길 13-1, 1층
- **재입회**
- 선명숙 건축사 / 큐브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무등로 255, 2층
- **전입**
- 임태형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플랜 / 광주 서구 풍곡로 61, 3층
- **결혼**
- 김용주 건축사 / 씨에이그룹 건축사사무소 / 장남 결혼 - 01월 12일(토)
- 곽영경 건축사 / (주)간토 건축사사무소 / 자녀 결혼 - 02월 22일(토) 오후 1시
- **부고**
- 김승모 건축사 / 예건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01월 18일(토)



대지위치: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862-2 / 대지면적: 382.4㎡ / 건축면적: 229.27㎡ / 연면적: 559.23㎡ / 건폐율: 59.96%
 용적률: 129.29% / 주용도: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 규모: 지상 3층 /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 진행

지난 12월 11일 장흥군 부산면 심천마을에서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신축 준공식도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는 장흥군과 함께 지난 12월 11일 장흥군 부산면 심천마을에서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신축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희망가꾸기 31호 주택은 지난 7월 화재로 인해 주택이 전소돼 오갈 곳이 없어 창고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을 위해 지어졌다.

장흥군의 희망복지지원팀은 EBS 나눔 0700에 방송모금을 요청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화재복구비와 주택신축 매칭 그랜트 지원사업 사업비를 지원받아 17평의 주택신축을 시작했다.

신축을 위해 부산초 45회 동창회, 사회복지법인 네트워크, 장흥종합사회복지관, 부산면 자율방범대, 부산면 번영회에서 후원에 참가했다.

장흥지역건축사회 소속 예담 건축사사무소 강인수 건축사는 설계 및 인허가를 맡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경계측량, ㈜탐진안전건설에서 철거 및 건축 과정에서 재능기부를 하여 사업비 5,300만 원으로 따뜻하고 안전한 주택이 마련됐다.

한편, 장흥군의 희망가꾸기 사업은 소외계층 집수리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4년부터 추진되어 오고 있다.

전남도, 주택 슬레이트 처리로 주거환경건강 증진

올해 219억... 취약계층 우선 지원하고 참고축사까지 확대해 6천여 동 계획

전라남도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219억 원을 들여 주택, 창고, 축사 등 6천11동을 신축 처리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초 밝혔다.

특히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당초 신청액 95억 원보다 14억 원 늘어난 109억 원을 확보해 더 많은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사업량 6천11동 가운데 주택은 5천182동, 소규모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829동이다. 이 가운데 603동은 취약계층에 우선 배정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와 지붕개량비를 함께 지원한다. 취약계층 선정은 우선적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타 취약계층 순으로 지원한다. 타 취약계층은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이하인 가구다.

그동안 슬레이트 처리지원은 주택에만 한정됐다. 하지만 전라남도는 창고와 축사까지 확대를 요청하는 도민의 현장 목소리를 환경부에 계속 건의해 50㎡ 이하 소규모 창고와 축사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

주택, 소규모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처리와 취약계층 지붕개량 사업비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오는 3월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시군별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통보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최대 344만 원이다.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는 1동당 427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는 1동당 172만 원을 각각 정액 지원한다.

슬레이트는 1970년대 전후 건축자재인 지붕재로 널리 보급됐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10~15% 함유하고 있어 비산석면을 흡입할 경우 석면폐증, 폐암, 악성중피종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전국 건축물 슬레이트는 총 149만 동으로 그

광고 및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20,000원/1년
- 구독료입금계좌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계좌번호: 신헌 131-009-47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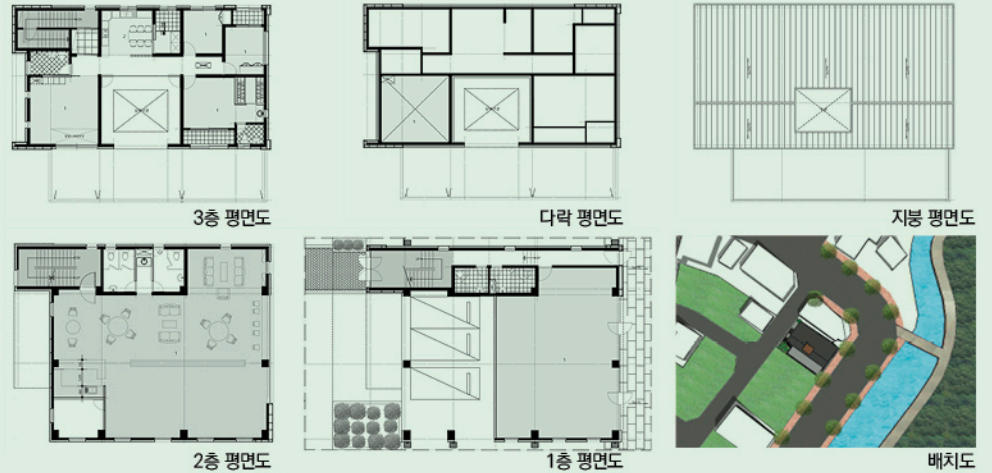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본 대지는 호수공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개성 있는 공간 구성의 미가 돋보이는 상가주택 건물로 단순한 외관으로 계획되었다. 1층은 임대용 상업공간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게 계획되었으며, 2층은 확 트인 공간과 전면의 큰 창을 이용해 개방감 있는 갤러리 카페, 3층은 중정과 테라스가 있는 고급주택으로 젊은 부부가 어린아이들과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되었다.



중 주택은 50.8%인 73만 동이다. 전남지역 건축물 슬레이트 24만 동 가운데 주택이 41.7%인 10만 동이 분포해 있다.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 착수

12월 18일,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목포시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종합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2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활성화 시범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목포 원도심 일대는 지난해 8월 근대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받아 전국 최초 공간단위 문화재인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어 올해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문화재를 통한 지역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번 보고회는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 조성의 첫발을 내딛는 단계로써 향후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용역의 착수보고이다.

용역은 원도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수많은 근대건축자산 및 거리경관에 대한 기초조사를 통해 기본계획 및 관리지침, 경관 가이드라인 방안 등을 도출해 향후 시범사업 세부추진계획과 사업비 확보의 기초를 마련한다.

시는 보고회에 참석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검토의견 및 제안사항은 실행 타당성 검토를 거쳐 종합정비계획에 적극 반영하고 문화재청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목포시 경동성당,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됐다

우리나라 최초 레지오 마리에 도입, 건축·종교·지역사적으로 가치 높아



목포시는 문화재청이 지난 12월 초에 호남 목포 지역의 천주교 역사와 가치를 간직하고 있는 목포 경동성당을 등록문화재 제764호로 등록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포 경동성당은 목포 일대 도서지방의 선교활동을 위해 아일랜드의 '성 골롬반외방선교회' 지원을 받아 1954년 건립된 성당으로, 목포지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당 건물이다.

경동성당은 그동안 인근 도서를 비롯한 서남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신앙을 전파하는 중심 역할을 해왔다. 또한, 한국 최초 레지오 마리아를 도입한 발상지로서 위상은 물론, 웅장한 외관을 가진 석조 건물로 지역을 대표하는 건축물 중 한 곳으로 평가되는 등 종교사적으로뿐만 아니라 건축학적으로도 높은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

아울러, 설립 당시 성모유치원이 함께 개원해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가난을 극복

하고 사회복지 및 종교,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했던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큰 유적이다.

나주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지난 12월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통한옥지구 조성 활성화 도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지난 12월 19일 금남동 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은 건축자산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 발굴과 건축자산 등재, 보존방안 강구, 건축자산법 특례에 의한 각종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나주 읍성권 내 한옥 건축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9월 착수, 올해 4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 '읍성권 전통한옥지구'(98,224㎡) 내 건축자산 기초조사 현황을 비롯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기본 및 관리계획 수립,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용역 추진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했고 검토 절차를 거친 후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장성군, 2년 연속 건축행정평가 우수기관 선정

국토부장관상 수상, 건축사들의 '재능기부' 민원상담도 한몫



장성군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군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을 기록했다.

이번 선정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과 건축물의 시공·철거 안전성 및 효율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의 항목을 심사했으며, 장성군은 건축민원을 적극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인 건축 행정을 추진해온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장성은 전국 최초로 '토방 낮추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토방은 재래식 가옥의 마루와 마당 사이를 흙으로 돌운 계단을 일컫는데, 이곳에 계단이나 경사로를 설치해 고령 주민의 주거 편의성과 안전도를 높이는 것이 사업의 주된 내용이다.

장성군은 관내 주택 1만 6천 동을 전수 조사한 뒤 매년 300동~400동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매주 수요일(2월~12월)마다 민원봉사과 내에서 무료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을 맡은 건축사들이 '재능기부'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밖에 공장, 폐기물처리시설, 축사시설 등 당해 건축허가로 발생하는 집단민원을 줄이기 위해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

전북건축사회, '도내 취약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성금' 전달

지난 12월 16일 전라북도청에서...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탁



전북건축사회(회장 이길환)는 지난 12월 16일 전라북도청 도지사실을 방문하여 송하진 지사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동수 회장 및 이용민 건설교통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리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꿈

과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도내 취약가구 주택 개보수사업 지원에 사용해달라고, 전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000만 원을 기탁했다.

이길환 회장은 "저소득 가정의 집수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하고 개선된 환경에서 따뜻한 겨울나기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과 함께, "전라북도건축사회는 앞으로도 주변의 취약한 이웃에게 더욱 관심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세상 만들기에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전북건축사회, '2019년 전북건축사 송년의 밤' 개최

지난 12월 17일 전주 오펠리스 컨벤션홀에서... 태완섭 사무국장의 퇴임행사도 함께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12월 17일 전주 오펠리스 컨벤션홀에서 회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전북건축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길환 회장은 협회 발전을 위해 항상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신 회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국가 경제 및 건축경기의 어려움, 공공건축가 제도라는 큰 파도 등 건축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위기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은 경험과 힘이 우리에게 있다고 강조하며, 회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32년간 사무국에서 근무하며 협회 발전에 헌신해온 태완섭 국장의 퇴임행사와 건축사 윤리교육을 병행하여 개최하고, 지역건축사회에서 지역 특산물을 경품으로 협찬하여 참석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북건축사회, '2020년 신년하례회' 개최

지난 1월 3일 전북건축사회관에서... 이길환 회장 '회원 단합' 강조



전북건축사회는 지난 1월 3일 전북건축사회관에서 2020년도 신년하례식을 개최했다.

이길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건축사업계도 '정회원 의무가입 문제', '공공건축가 제도' 등 힘

든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경자년 새해에는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고 밝은 웃음으로 한 해를 보냈으면 한다"고 말한 후 "우리가 힘을 모아 열정적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건축사회 신년하례회에는 역대 회장과 지역회장,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길환 회장의 타봉식에 이어 협회 및 회원사무소의 건승을 기원하는 케익 절단과 회원 상호 간의 신년 인사와 덕담과 아울러 경자년 캐치프레이즈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자리를 마무리하고, 이어 점심으로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시종(始終) 화기애애(和氣霽霽)한 분위기 속에서 경자년 신년하례회를 마쳤다.

전주지역건축사회, '2019 전주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지난 12월 11일 전주 오펠리스 5층 컨벤션홀에서... 회원 110여 명 참석



전북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이태원)는 지난 12월 11일 전주 오펠리스 컨벤션홀에서 회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주시건축사회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태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2019년 한 해 동안 전주시 건축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최근 공공건축가 제도와 관련하여 건축사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행정과 최대한 협의할 것을 약속드리며 회원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전북건축사회에서 근무하며 협회 발전에 헌신해온 태완섭

봉림빌딩

조은석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JCN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2, 401호
Tel. 063-283-0979



대지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1331-11 / 대지면적 : 555.20㎡ / 건축면적 : 388.495㎡
연면적 : 2,609.269㎡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 규모 : 지하 1층, 지상 6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국장의 퇴임을 기념하며 전주시 회원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드리고, 이어진 행사로 만찬을 하며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회원들 간의 여흥을 나누고 경품행사를 진행에 참석 회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전주시, '2019년 전주시 건축상 시상식' 개최

지난 12월 26일에... 힐스타운 난솔헌(주거), 전주시립도서관 꽃심(비주거) 대상



힐스타운 난솔헌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 '힐스타운 난솔헌'과 최근 개관한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이 전주를 대표하는 창의적인 건축물로 인정을 받았다.

전주시는 지난 12월 26일 '2019년 전주시 건축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올해 수상작으로 선정된 '힐스타운 난솔헌' 등 7개 작품의 건축사 7명과 시공자(건축명장) 1명에게 도시미관 향상과 건축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전주시 건축상 상패를 수여했다. 또, 건축주에게는 창의적인 건축물임을 표시한 동판을 전달했다.

주거 부문과 비주거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이번 건축상 공모전에서는 주거 부문에 '힐스타운 난솔헌'(예송 건축사사무소/유성환 건축사 설계)과 '전주시립도서관 꽃심'(대성 건축사사무소/김창호 건축사 설계)이 각각 부문별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또한 수상작 중 시공이 우수한 건축명장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을 시공한 (유)동아종합건설이 차지했다.

주거 부문 대상인 중화산동 힐스타운 난솔헌의 경우, 주변 환경과 잘 조화된 건물의 배치가 인상적이고, 건물의 조형성 및 거주자의 입장에서 설계된 평면계획 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주거 부문 대상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은 쾌적한 경관조성과 주변 녹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대지조건의 활용이 우수하고, 평면계획이 단순 명쾌하며 저체도의 사용과 세로로 된 긴 창을 통한 입면의 다양성 등이 우수한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019년 전주시 건축상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품된 14개 작품에 대해 △건축물의 배치형태 △조형성 △독창성 △공간 활용의 효율성 △주변과의 조화 등을 심사한 후 수상작을 최종 선정했다.

자세한 수상작 목록은 전주시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주시, 공공건축 차별화로 '건축디자인 도시 전주' 만든다

오는 1월 16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공공건축이 지역을 바꾼다' 주제로

전북 전주시가 '건물도시'가 아닌 '건축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전주만의 특색 있고 매력적인 공공건축물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시는 창의적인 공공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수렴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보고, 공공건축물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참여단 의견수렴 및 자문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설계공모 운영(안)'을 마련, 오는 1월 16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설계공모대상이 기존 설계금액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 것과 전주시 공공건축물 차별화를 위한 시스템을 갖춘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달라진 건축설계공모 운영(안)에 따르면 전주시는 '건축설계공모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공건축 기획단계에서부터 시민, 시설운영자, 건축사 등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심사위원 풀(pool)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시각의 도입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매 공모 발주 시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사위원 추천 및 추천을 하는 등 심사위원 위촉방식을 개선하여 공공건축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설계공모 비용을 최소화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지역건축사의 활발한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시는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과정도 공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오는 16일 오후 2시 전주도시혁신센터 다올마당(당당)에서 '공공건축이 지역을 바꾼다'는 주제로 달라진 전주시 건축설계공모 운영(안)에 대한 설명회를 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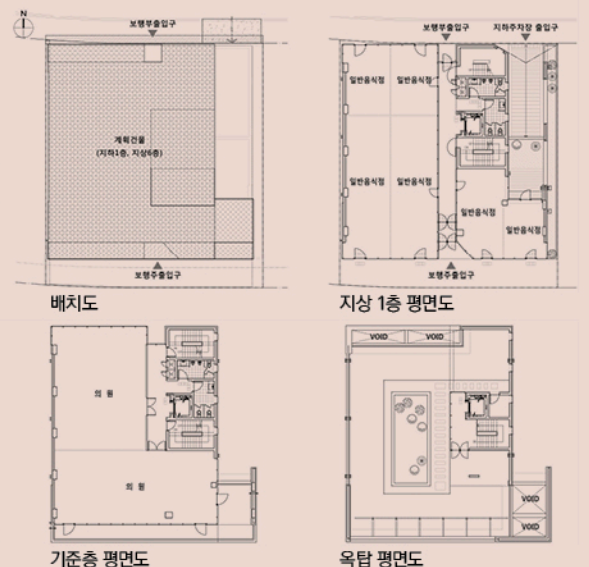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박세진 건축사 / 세진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20
- **전입**
- 이정욱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좋은건축 / 전북 완주군 이서면 지사제로 15
- **변경(소재지)**
- 안 철 건축사 / 고운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54
- 유창수 건축사 / 류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254
- **부고**
- 이균수 건축사 / (주)맥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2월 06일(금)
- 진현용 건축사 / 그린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2월 08일(일)
- 김영훈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한 / 모친상 - 12월 10일(화)
- 고대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지오 / 부친상 - 12월 12일(목)
- 정범수 건축사 / 남북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12월 16일(월)
- 김일중 건축사 / (유)제일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12월 29일(일)
- 김용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름다운가 / 빙부상 - 01월 04일(토)
- 김주식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가원 / 본인별세 - 01월 05일(일)



건축가가 건물의 자리를 잡기 위해선 주변 대지를 잘 분석하고 새로운 건축물이 기존 대지에 순응하도록 중매역할을 잘 해야 된다고 본다.

본 건물은 송천동 에코시티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 용도로써 전면에 보이는 동부우회도로와 후면에 위치한 공용주차장으로의 전망과 시각적인 축을 고려하여 건물의 투명성을 강조하였으며, 3~5층은 여유 있는 발코니를 계획하여 공간의 상호교감(Interactive)을 부여하고자 했다. 특히 최상층은 루프탑(ROOFTOP) 개념을 도입하여 옥상녹화뿐 아니라 야외카페를 두어 힐링이 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건물의 활기를 불어넣고자 했다.



제20회 전라북도 건축문화상 일반 부문(사용승인 공공 분야) 금상



대지위치 :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오천리 1086-4 외 4필지 / 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마을공동시설) / 대지면적 : 2,959.00㎡ / 건축면적 : 470.20㎡ / 연면적 : 633.26㎡
 규모 : 1,2동-지상 2층, 3동-지상 1층 / 구조 : 1,2동-철근콘크리트구조, 3동-경량철골구조 / 주요 마감 : 화강석바너구이, 징크판돌출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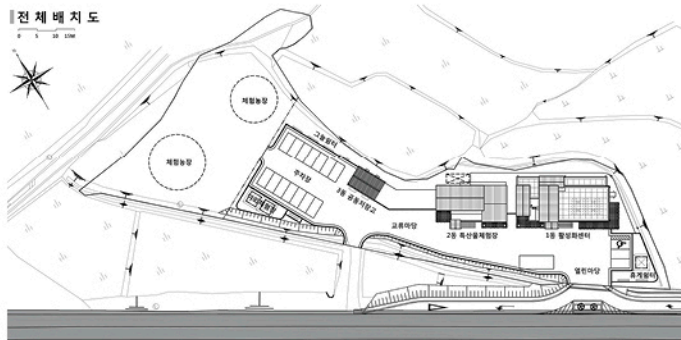
오죽정인

설계자 : 이재현 건축사 (상상디자인 건축사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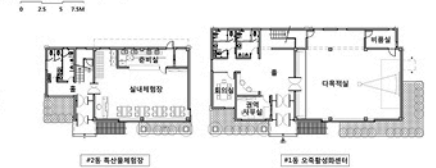
하늘 가까운 진안고원에서 오천리와 죽산리 마을을 만난다. 오죽정인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사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들의 삶의 가장 복합적인 문화공간이 되고자 했다.

시설물과 외부공간이 상호 연계하여 기능성을 극대화하고 주민과 방문객에게 쉼터와 편의의 공간으로서 마을과의 연결성을 통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거두면서 소통의 공간이자 기억의 공간으로 마을의 역사와 문화가 되어 주길 바란다. 우리네 정인의 마을을 꿈꾸며...

전체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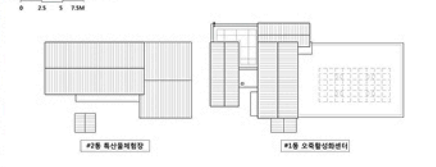
1,2동 지상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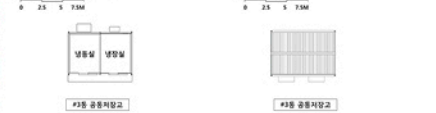
1,2동 지상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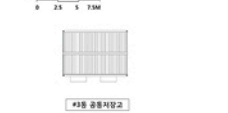
1,2동 지붕 평면도



3동 지상 1층 평면도



3동 지붕 평면도



건축문화사랑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식 및 초청강연회 개최

- 지난 1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건축사와 일반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 영상으로 보는 10년간의 기록 상영... 창의체험 조원용 건축사의 강연회와 기념북 배부도...

광주·전남·전북건축사회가 공동으로 발행하고 있는 본지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창간 1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식과 기념강연회를 지난 12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건축사와 일반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활동해온 창간 1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서재형 건축사)는 창의체험 대표이사이자 다이아몬드 건축사사무소 조원용 건축사의 초청강연회와 10년간의 활동을 담은 기념북을 마련했다.

특히 기념식에서 창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행에 힘써온 창간 발행인과 창간 편집인, 편집위원, 전담기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행사내용이다.



창간 10주년 기념북 구성



사진으로 보는 창간 10주년 기념식



기념행사 사회를 맡은 임현정 편집위원



본지 건축문화사랑 강현구 대표 발행인의 개회사



(사)광주건축단체연합회 남승진 회장의 축사



서재형 추진위원장이 제작한 기념북을 강현구 대표 발행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 건축사와 일반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강현구 대표 발행인이 신정철 초대 발행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박홍근 초대 편집인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활동한 편집위원과 전담기자에게도 공로패가 수여되었다.



조원용 건축사의 '생활 속 건축이야기' 주제 강연이 진행됐다.

문의 | 1855-2240



화재 NO · 단열 YES

준불연가등급

DK 보드 EPS 단열재

외단열용(2' X 4')
건축용(3' X 6')
판넬용(나등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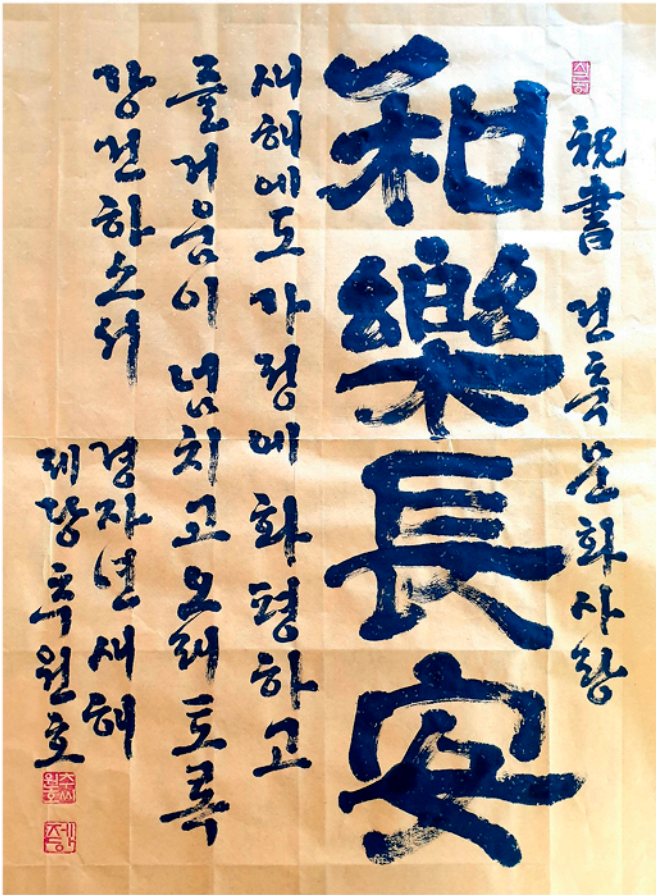
DK보드는 독일 BASF 네오폴(비드법2종)에 특수 난연코팅과 난연액도포를 통해 단생한 준불연 가등급 단열재입니다.

- 준불연재료 공인시험기관 인증
- 열전도율 : 0.034 W/m·k 이하
- 친환경 수성

준불연 DK보드 www.dkboard.kr 검색

DK 주대 광 판 널 주디케이보드

신년 휘호 _ 제당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세상사는 느낌 _ 박철규 독자 / 전라남도 여수시

한겨울 하얀 눈을 기다리며...

광주에서 살다가 이곳 여수에 오게 되면서부터 눈을 보기가 쉽지 않게 됐다. 지리적, 주변 환경적 탓인지는 몰라도 공장지대가 많은 이곳에서는 유독 하얀 눈을 구경하기가 어렵다. 특히 올해는 기후변화 탓인지 이곳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눈을 보기가 어렵고, 심지어 반팔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다는 뉴스를 본 적도 있다.

매년 환경 파괴로 인한 변화에 사람들은 어떻게든 적응하겠지만 동물과 식물들의 변화...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도 커서 마음 한켠이 아려온다.

얼마 전 2억 년을 살아온 길이 7m 세계 최대 민물고기 '주걱철갑상어'가 2020년에 첫 멸종되는 동물로 알려졌다.

지금의 추세라면 우리가 현재 볼 수 있는 것들이 다음 세대는 많은 것을 볼 수 없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빈번해질 것이라 본다. 한겨울에 눈을 보지 못하는 지금처럼 말이다.

정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0.1.16.)을 앞두고 간담회 개최
제조업을 대상으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설명 및 '20년 산재 감소 대책 공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강현철)은 지난 1월 8일 오후 2시에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도급인 책임 강화' 등 주요 내용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상시근로자 수 500인 이상의 제조업 9개 기업의 공장장 및 임원들이 참석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개정 산안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별 개정 산안법에 대한 준비 상황 확인 및 '20년 산재 감소대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개정 산안법에 대한 기업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산재 예방 정책 추진에 협조를 구했다.

강현철 청장은 모두발언에서 "수급인의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생산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도 보호하여야 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이번 산안법 개정이 산재 감소로 이어져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면서 "산업재해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급인으로서 총괄적인 안전보건 관리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월 9일에는 시공능력순위 101위부터 200위 이내의 건설업 10개 기업의 대표이사 및 임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법을 주요 내용

- 산업 구조의 변화로 도급이 일반화되면서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자주 일어나 개정법에서는 도급인(원청)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여 관계수급인(하청)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했다.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범위는 기존 사업장 내 22개 위험 장소에서 ①도급인의 사업장 전체와 ②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할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 이에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 붕괴, 감전 등의 위험 장소*로 규정했다.
 - * 시행령 14개소(추락, 붕괴, 감전 위험 장소 등), 시행규칙 7개소(화재·폭발 위험 장소 등)
- 또한 인가 대상이었던 도급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급성 독성 등이 있는 물질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사내도급 시 승인을 받도록 했다.
 - 이에 시행령에서는 중량 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 도급 금지와 도급 승인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도급 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을 선정할 의무, 도급인의 안전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등도 개정법에 반영했다.
 - *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개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노동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재범 시 가중(형의 1/2)
-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하도록 이행 의무를 부과했다.
 - * 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
- 또한,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건설기계(27종)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게 안전 보건 조치 및 안전 보건 교육 등의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및 12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은 전체의 1.7%에 불과하나 사고사망자는 전체 9.7%를 차지하고 있어,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을 '공사금액 120억 원(토목공사는 150억 원) 이상'에서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 * (경과규정) 공사금액 100억 원 이상('20.7.1.), 80억 원~100억 원 미만('21.7.1.), 60억 원~80억 원 미만('22.7.1.), 50억 원~60억 원 미만('23.7.1.)

자료제공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사단법인 한국환경건축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of Eco-Environmental Architecture

| 광주분원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03, 휴먼빌딩 618호
T. 062)385-5053 F. 062)385-5054

본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9길 26 에이치비지니스파크 D동 907-912호 T. 02)558-8123 F. 02)558-8124
부산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17 센텀리더스마크 1405호 T. 051)745-9191 F. 051)745-9195

“인간·환경·기술이 하나되는 친환경 건축도시문화를 선도하는 전문기관”

에너지절약 계획서 검토기관

장애물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녹색건축 인증기관

지능형건축물 인증기관

공동주택결로 성능평가기관

연구 업무

스마트건축·도시연구
건강건축연구(WELL Building)
유니버설디자인·고령자주거연구
제로에너지 건축연구(ZEB)
건축환경 및 성능연구
건물에너지진단 전문기관
그린리모델링 전문기관

www.kriea.re.kr